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 대학생과 중국체육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세형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홍진남

2010년 12월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指導教授 李世衡

洪 珍 南

이 論文을 體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2月

洪珍南의 體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2月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가설	4
4. 용어의 정의	5
5.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7
1. 진로결정	7
2. 자기효능감	9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2
4. 진로성숙도	14
5. 진로성숙과 관련된 이론	17
6.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20
7. 선행연구 고찰	21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측정도구	24
3. 연구절차	28
4. 자료분석	29

IV. 연구결과	30
1. 개인적 특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성 검증	30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34
V. 논의	41
VI. 결론	45
참고문헌	47
부록 : 연구의 설문지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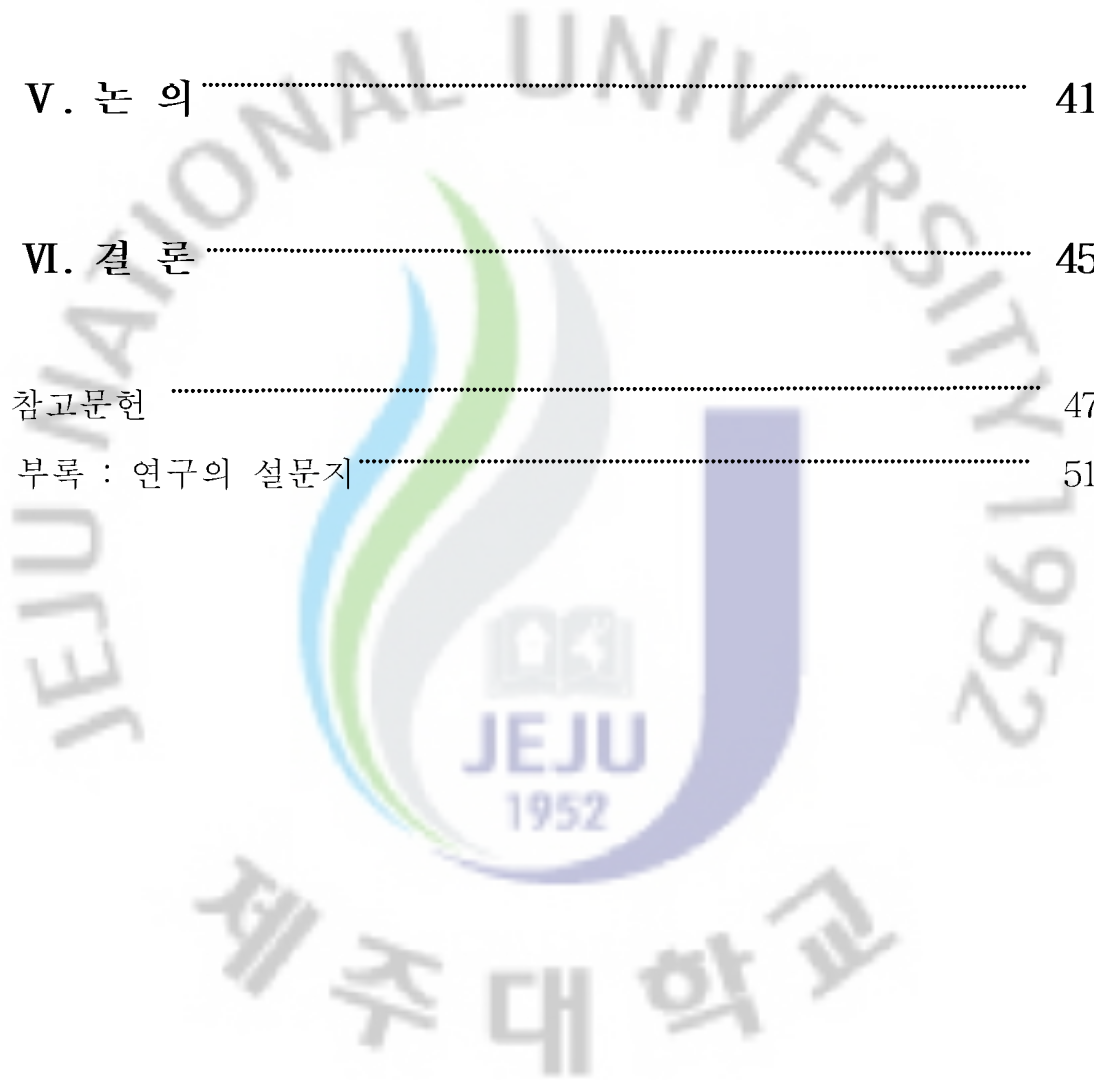


표 목차

<표 1>한국 체육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23
<표 2>중국 체육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24
<표 3>설문지의 구성 내용	25
<표 4>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26
<표 5>진로성숙도 척도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27
<표 6>한. 중 체육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의 비교	30
<표 7>한. 중 체육대학생의 독신자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의 비교.....	31
<표 8>한. 중 체육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의 비교	32
<표 9>한. 중 체육대학생의 진로지도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요인의 비교	33
<표 10>한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정성에 관한 다 중회귀분석	34
<표 11>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정성에 관한 다 중회귀분석	35
<표 12>한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준비성에 관한 다 중회귀분석	35
<표 13>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준비성에 관한 다 중회귀분석	36

<표 14>한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독립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37
<표 15>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독립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37
<표 16>한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적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38
<표 17>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적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38
<표 18>한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확신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39
<표 19>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확신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40

그림 목차

<그림 1>변인간의 관계모형	4
<그림 2>Crites의 진로성숙 모형	16
<그림 3>본 연구의 절차	2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Tolbert(1980)는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선택한 진로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 발휘의 기회, 주거지, 교우의 유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이재창, 2002). 이와 같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삶 전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진로결정은 본인의 욕구충족은 물론 자기발전, 가족의 행복,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수행을 하기위한 첫 시작이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족한 진로의식 및 정보, 주변의 편견,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뼈뿔어진 사회관습에 진로결정이라는 인생의 과업 앞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의 불안은 인생의 첫 실패를 맛보게 되며 이는 곧 사회적 고립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결정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대학생 시기는 새로운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이 이루어지며, 진로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구체화하고 직업에 대한 선택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그 선택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효율적인 진로선택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상담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정진선, 2001).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진로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에 봉착하면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찾는데 매우 혼란을 겪고,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에서의 진로선택의 어려움은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생에게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위한 탐색행동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학입학 준비, 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부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그리하여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중등학교 시절에 이미 수행해야 할 진로발달과업을 대학 입학 이후로 미뤄왔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김은영 2002).

현재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인해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여러 변화가 일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대학생은 과거에 비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어영 2007).

2009 《中國大學生就業報告》에 의하면 연속2년 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전공 중에 체육계열도 있었다. 현재 중국 체육계열의 취업률은 타 학과의 절반도 안 된다. 많은 직장에서는 체육계열학생들을 전혀 채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대학생들의 취직의향이 사회의 필요와 일정한 차이가 있고 또한 대학 입학 과정에서 진로나 적성간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전망, 그에 따른 진로 불안 등등의 이유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체육대학생들의 현실적이고 합리적 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6). 그리고 Lent & Hackett(1987)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진로 선택이나 전공 선택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진로나 활동에 강한 흥미를 느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 생애를 통한 진로발달 과정을 평가하고 촉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밝혀지고 있으며(Gainor, 2006), 개인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 자기효능감 신념에 대한 평가가 직업적 흥미나 진

로선택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Brown, Lent & Gore, 2000). 현재 중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론과 설문지의 수정의 단계에 밖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이 전체변량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 바 있다(이은주, 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각 변인과 진로성숙도의 각 변인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아진다(趙欣, 2009) 이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체육계열 분야에서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로는 체육교사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류태호, 2000; 부기원, 1998; 이재용, 최희진, 2002;),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연구(박은지, 2005; 오준석, 2000; 손천택, 2003, 최영실, 1996)등의 대부분이 지도자의 양성체제와 지도자의 역할, 효율적인 교수행동 등 직전교육의 중요성과 양성체제를 중심으로 진로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이미 사회에 진출한 체육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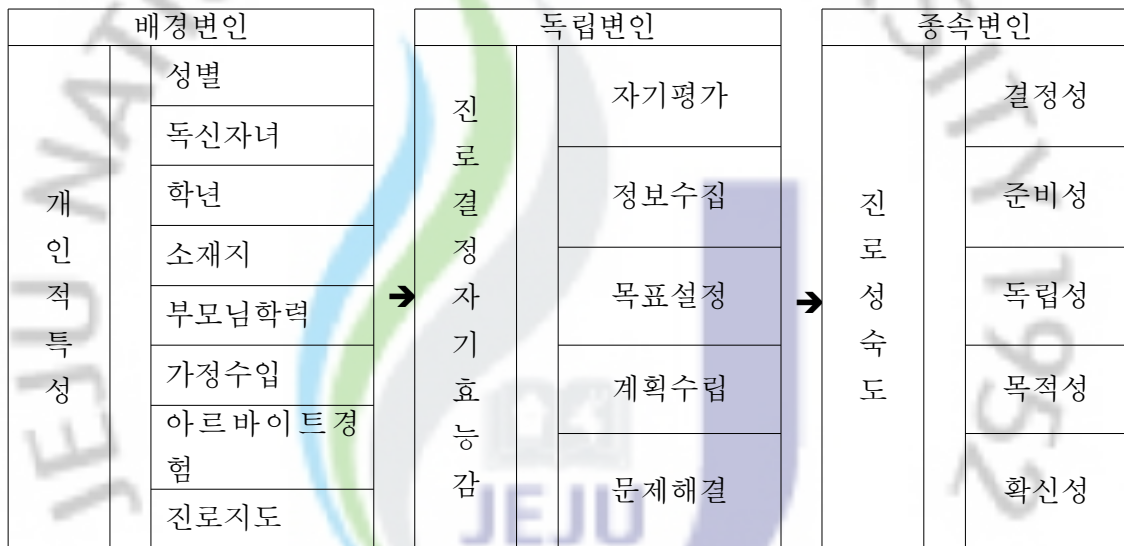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한국체육계열 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진로성숙을 높이고 아울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잠정적인 진로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변인 및 가설

1) 연구의 변인

체육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인과관계는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인간의 관계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변인간의 관계모형

2) 연구의 가설

가설 1,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한, 중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한, 중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결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한, 중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준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한, 중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독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한, 중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목적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한, 중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확신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 성취할 수 있는 진로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을 의미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유래한 구성개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자원 및 행동절차를 개인이 얼마나 잘 발휘하는가에 대한 그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으로 정의 된다.

따라서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으로 구분된다.

2). 진로성숙도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고성, 안정성, 일관성을 의미하며, 진로선택을 통해 개인의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하며 진로결정에 필요한 준비

및 계획,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를 뜻한다. 또한 자신의 진로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란 체육대학생들의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 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는데 이 발달과업의 인지 및 수행여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등으로 구분된.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선행변인, 연구대상, 측정도구, 관계설정 등에서 본 연구의 성격에 적합한 과정으로서의 엄밀성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2010년 한국 S시 체육대학교와 중국 상구시 사범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체육대학생으로만 설정하였기 때문에 결과물을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변인 모두를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설정된 변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변인 모두를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설정된 변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진로성숙도의 정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

1) 진로결정의 개념

진로결정의 개념은 왜 일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불확실한가를 규명하고자하는 진로 미결정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래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진로결정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진로발달이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결정을 의미한다.

반면에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결정의 원인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진로,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선택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환경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로결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인이 진로를 결정한 사람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두 가지로(발달적 미결정, 결단성이 부족한 미결정)구분한다. 최근에는 진로를 결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를 미결정한(undecided)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indecisive)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 진로를 미결정한 사람들의 경우,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환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는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즉 성격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로 만성적인 미결정으로 불려왔다. 이들은 진로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심리적인 능력이 결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달적인 과정의 진로미결정자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의 유형에 따라 진로상담의 내용과 목적이 달라져야 하고 진로상담자들도 각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의 성격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내담자를 상담하고 그에 적합한 상담전략으로 각 내담자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서 진로결정수준의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김봉환, 1997).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진로선택과 준비를 위한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준비행동등과 같은 진로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2) 진로결정과 관련된 변인

진로결정에 관련된 변인들로 직업적 미결정(Indecision), 진로미결정 변인들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Holland & Holland(1997)는 정보의 부족과 같은 표면적인 원인에서부터 더 넓고 뿌리 깊은 원인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원인들의 범위를 반영하는 직업적 미결정의 형태의 수준을 분류하였다. 그들은 직업적 미결정의 가장 주된 원인은 미결정적 인성(indecisive Person)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들은 미결정적 인성은 갈등적인 학습 경험-명확한 자아감의 형성을 방해하는 -이라는 인생경험 때문에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회인지이론의 대표적인 Bandura(1997)는 진로미결정 원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고 Tayler & Betz(1993)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인식하는데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진로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Gordon(1981)은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변인들로 흥미, 가치, 능력, 요구, 자아개념, 성숙도, 동기, 에너지수준, 대학수준, 의존성, 독립성, 불안 사회경제적 수준.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 성별, 사회적 도덕적 태도, 부모들의 수입, 성적, 과외활동, 일의 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생애목표/포

부, 성취검사점수, 회피행동, 직업정보결여, 의사결정기술패턴/유형 등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Sepich(1987)는 진로미결정과 상관을 보인 변인들로 능력, 불안, 흥미와 함께 성격변인들로서 통제소재, 성공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 자기효능감, 정체감, 문제해결능력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윤경(2000)은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자기 및 직업에 관한 정보부족, 자신감부족, 불안, 진로결정에 대한 관심 등을 제시하였다. Blustin(1995)와 Water(2000)에 의하면 안정애착은 진로발달간의 연결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환경에 대한 능동적 탐색과 숙달감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탐색이며 진로발달을 증진시키는 자기와 일의 세계에 대한 능동적 탐색이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Bandura에 의하면,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인간발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조아미, 2000). 이러한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Schunk(1982)는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정의 내렸는데,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학습자기효능감이라 하였고,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행동뿐만 아니라 기술, 결과기대, 가치 등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Shell은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일반적 성격특성의 하나로서 개념화시켰다. 또한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한 개인보다 다양하고 많은 성공경험을 한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조은정, 1988; 차정은, 1997).

자기효능이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지적인 기술들 행동적인 요소들, 사회적인 기술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고 하였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술들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생산적인 기제이며, 주어진 수준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이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사람들이 주어진 과제에서 얼마나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Zimmerman, 2000).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는 자신감(Self-confidence)이나 포부, 자아개념(self concept), 자기존중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개념들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환경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관점으로 해설될 수 있다(우희정, 1993). 그러나 각 개념들이 지니는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자신감이 반면 또는 확신의 강도를 의미하나 인지된 능력에 구체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은 반면, 자기효능감은 그 신념의 강도와 의지된 능력의 구체적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홍혜영, 1995). 포부와 자기효능감은 모두 기대요소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포부는 개인이 나름대로 스스로 결정한 목표와 관계된 것이며, 자기효능감에 비해 상황적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결정인자이다(정순애, 1998). 다음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기에게 부여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모든 특성들의 구조물로 정의되는 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에 비해 다른 활동이나, 같은 활동의 다른 수준 또는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인지의 복잡성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Bandura, 1986; 안순자, 1997). 마지막으로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모두 자기관련사고 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은 특정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결국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포부, 자아존중감과 비교하여 자기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 신념,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박미진, 1999).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인간의 행동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스스로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과제에서 낮은 자기 효능감은 그러한 행동을 회피하게 하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그러한 행동에 보다 자주 접근하게 한다. 그것은 행동을 이해하고 인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하고 가정하였다.

2)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성고의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정신적 각성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성공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은 개인적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다음의 유사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하는 반면,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가 뿐 그와 관련된 신념을 약화시킨다. 특히 수행의 초기에 일어난 실패, 노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실패, 외부에서 의 방해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낮게 한다. 그러나 반복된 성공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강해지면 일시적으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노력에 의해 실패가 극복되면, 오히려 자기 동기화된 지속성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극히 어려운 장애도 극복했다는 경험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실패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실패가 일어나는 전체적 경험의 형태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 일단 자기효능감 기대가 형성되면 이는 그 밖의 관련 상황에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은 성공경험보다 영향력은 약하지만

인간의 경험 중 차지하게 되는 대리경험의 비중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델링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에 대한 예측성과 통제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델링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타인을 가장 좋은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리적 경험은 성공경험보다 자기효능감에 약한 효과를 미치지만, 수행에 대한 노력을 통해 예측과 통제를 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산출할 수 있다.

셋째,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자신이 믿도록 말해 주는 것으로 이 방법에 의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성취에 의한 자기효능감 보다는 약하다. 왜냐하면, 언어적 설득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보다는 주로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때 자기효능감과 수행이 증진되고,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때 효능감과 수행이 감소된다. 언어적 설득에서는 그러한 설득을 하는 상대방의 지식과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넷째, 정신적 각성(emotional arousal)은 개인의 생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안이나 공포상황에선 정서적, 생리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개인이 특정 과업에 접했을 때, 긍정적으로 각성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각성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각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상태 및 성격, 심리적 각성, 개인의 즉각적 감정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최근에 직업 행동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진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이 진로결정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Brooks, 1990).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주어진 과업 또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갖는 신념을 말하는데, 이는 네 가지 학습 경험 즉, 수행성취,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사회적 설득이나 격려를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것인가, 역경에 직면하여 어느 정도 행동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즉 구체적인 과제나 행동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피하는 반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 행동을 수행한다.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결정과 직업적인 성취(진로 선택의 범위, 진로탐색에서의 지속성)에 중요한 인지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한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Taylor와 Betz(1983)가 진로발달 분야에 응용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련한 관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이다. 그들은 자기 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특수한 과제와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개인의 기대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효율적인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최초로 연구했으며 진로결정에 관한 자기효율성(self-efficacy expectations)을 측정하는 도구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를 개발했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고(이은경, 2002; Betz & Hackett, 1981; Speich, 1987),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Lent & Hackett, 1987), 특정 학문분야, 전공 및 직업의 선택, 수학여행,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진로태도 등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 예언력을 갖고 있다.

이현주(2000)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김민순(2004)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행동으로 연결 지어지는지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행동 예언력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의사결정 영역에 적용한 것이 진로결정 효능감이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관련 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의사결정 과제나 행동을 피하는 반면,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결정 과제나 행동을 자신 있게 수행한다(이희영, 2003).

4. 진로성숙도

1) 진로성숙도의 개념

진로성숙도의 개념은 1940년대 청소년들의 진로 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시작되어 1950년 직업 선택을 연구하는 발달 이론가들에 의해 미국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직업심리학자들의 관심은 개인과 직업을 짝짓던 과거직업선택의 정적 개념에서 직업발달이라는 동적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들은 직업결정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것이라는 특성이론을 부정하고 일생을 통해 발달해가는 발달적 과정이라고 보았다(김수리, 2004).

Ginzberg(1951)은 Buehler(1933)의 생애단계이론, Lehman & Witty(1942)의 흥미단계이론, Strong(1931)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이론 등의 영향을 받아 발달적 접근법을 직업선택이론에 도입하였다. Ginzberg(1951)의 이론의 근간은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 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의 외적 요인과의 타협을 통해 직업 선택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와 같은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Ginzberg(1972)는 직업선택의 비가역성을 수정하고 진로발달이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진로선택 시 개인의 가치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중시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수리, 2004).

Super(1995)는 Ginzberg의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직업선택에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진로 성숙이란 성장기에서 쇠퇴기에 이르기 까지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의 한 도달 수준으로 개인이 연령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성으로 개인이 연령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생애 단계의 개념이 진로 발달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고, 진로 발달의 개념은 진로 성숙의 개념을 생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김길정, 2003; 김수리, 2004).

Crites(1961)는 Super의 진로성숙의 영역을 바탕으로 직업성숙의 개념을 다소 수정하고 그 의견을 더욱 체계화 하였다. Crites는 직업 성숙보다 진로 성숙이란 개념이 포괄적이라고 보아 진로성숙이란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연령층이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 하였다. 또한 Super의 직업선택에서의 일관성과 현실성의 영역에다 직업선택의 태도, 능력의 영역을 첨가하였다. 그는 태도척도(attitude scale)와 능력척도(competence scale)를 개발하여 진로성숙도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진로성숙도(발달과정)

진로선택의 내용						진로선택의 과정									
일관성		현실성		능력		태도									
시간	영역	수준	능력	흥미	성격	자기평가	직업목표	목표선정	계획성	문제해결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그림 2> Crites의 진로성숙 모형

Gibbons & Lohnes(1964)는 진로성숙은 진로선택이나 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이며,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진로성숙 수준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육과정, 직업정보, 흥미, 가치 등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장석민(1991)은 진로성숙이란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란 개념으로 통합하였으며,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시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정의하였다(김수리, 2004).

임두순(1992)은 진로성숙이란 자아의 이해와 일 및 직업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탐색, 선택, 결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정도를 종합하여 정의하였다. 김관용(1999)은 개인의 직업적 소양, 진로성숙을 진로의식, 탐색, 의사결정에서의 발전적 변화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 가는 준비의 정도로 규정하였다(김정수, 2005). 김충기(1999)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의 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아는 과정을 직업 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이라 보았다(길길정, 2003; 김정수, 2005).

한국교육개발원(1992)은 진로성숙의 개념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연

속적인 발달개념으로 보되, 부분적으로는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로성숙이란,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 중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5. 진로성숙과 관련된 이론

1) Ginzberg의 이론

Ginzberg(1952)의 이론은 직업행동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이론으로서 직업선택을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보고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환상적 단계 (11세 이전)로서, 자신의 능력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환상으로 직업세계를 바라보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시도적(시험적) 단계(11-17)로서,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 등을 직업선택의 주요 요소로 간주하나 현실적인 제약 조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시도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는 현실적(선택의) 단계(18세 이후)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의 시기로서 직업요구 조건, 교육기회, 취업기회 등 외부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과 자기 자신과의 타협으로 실제적인 직업 선택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Ginzberg(1951)의 이론은 진로지도에 필요한 개인의 직업적 성숙도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선택과정에서 단계에 따른 문제의 발견과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달단계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선택과정은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관에 좌우되지만, 나중에는 이 요인들과 외부적인 조건이 함께 타협됨으로써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김충기, 1983; 김정수, 2005).

Ginzberg는 그의 이론을 제시한지 약 20년 후에 이론의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진로결정은 생의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

고, 개인의 진로선택은 생애단계에 따라 변화. 발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단계 이론은 대체로 중산층 출신의 남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류층 출신이나 여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2) Super의 이론

Super(1957)의 진로발달 이론은 Ginzberg의 진로발달 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이론으로서 그의 이론의 핵심은 진로의식의 발달과정이 바로 개인의 자아개념의 발달과 그 실현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자아개념은 타고난 성격, 신체적 특징,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기회, 역할 수행의 결과에 대한 주위의 반응 등의 상호 작용하여 얻은 결과라고 한다(김수리, 2004).

그의 이론의 대표적 공통점은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라 할 수 있지만 진로성숙 개념 역시 진로발달 이론의 중요한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성숙은 지속적인 일련의 생애단계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발달적 과업을 통해 획득된다고 보고 있다.

Super의 진로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단계는 성장기(growth stage, 출생-14세)로 가정과 학교에서 주위 인물들과 동일시를 통해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며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차차 사회적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단계로 나누어진다. 환상기(fantasy substage, 4-10세)는 아동의 욕구가 지배적이며 역할 수행이 중시되는 시기이다. 흥미기(interest substage, 11-12세)는 진로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흥미가 중시되는 시기이다. 능력기(capacity substage, 13-14세)는 진로 선택의 능력을 중시하며 직업에서의 훈련조건을 중시하는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 15-24세)로 이 시기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기회 등을 고려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해보는 시기이다. 잠정기(tentative substage, 15-17세)는 개인은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직업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환상이나 토론, 일의 경험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보는 시기이다. 전환기(transition substage, 18-21세)는 개인은 장래 직업세계에 들어갈 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 시기에는 현실적 요인을 중시

하는 시기이다. 시행기(trial substage, 22-24세)는 개인은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해서 종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셋째 단계는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25-44세)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생활의 터전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시행기(trial substage, 25-30세)는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일의 세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한 두 차례 변화를 시도한다. 안정기(stabilization substage, 31-44세)는 개인의 진로유형이 안정되는 시기로서 개인은 그의 직업세계에서 안정과 만족감, 소속감, 지위 등을 갖게 된다.

넷째 단계는 유지기(maintenance stage, 45-64세)로 직업세계에서 확고한 위치가 정립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시기는 안정된 생활 속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다섯째 단계는 쇠퇴기(decline stage, 65세 이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해짐에 따라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을 하고 그 직업에서 안정을 구하고 발전을 구하면서 자아개념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정근, 1988). 특히 Jordaan(1963)에 따르면 탐색기란 자신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으로 직업을 찾고 준비하며 적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을 얻도록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Super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탐색기 가운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시기를 잠정기라 하여 이 시기에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진로에 관련된 요구 등을 인식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주장하였다(김현옥, 1989; 김길정, 2003; 김정수, 2005; 한영준, 2006).

Super(1953)의 이론은 지나치게 자아개념 지향적이며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직업발달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개인의 직업발달 과정을 자아실현과 생애 발달의 과정으로 본 점과 자아개념의 직업자아개념으로의 전환, 진로유형, 진로성숙, 진로발달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로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발달 이론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유형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업성숙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 후 직업이란 개념보다 진로라는 말을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보고, 진로성숙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김수리, 2004).

6.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은 개인이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단계에 대하여 현재 그 직업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이 기다하는 행동 사이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길수(2004)와 박미진(1999)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혜주(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심은숙(2003)은 전고학과의 만족수준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Ginzberg et al.(1951)에 의하면 자신의 직업태도 수준을 고려할 때 여학생의 경우는 직업태도에 있어서 직업에 대한 가치가 지배적인 기초가 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흥미가 직업태도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직업적으로 성숙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간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통해 다양한 삶을 영위해 간다.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일생을 좌우하는 중용한 일까지 매 순간마다의 선택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많은 선택들 중에서 특히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올바른 진로선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진로탐색의 과정을 거칠 때 보다 가치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은 물론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위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진로성숙 수준을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그들의 진로성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에서 시대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진로 상담 시에 진로 결정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7. 선행연구의 고찰

진로분야에 대한 자기 효능감 이론의 적용은 Betz와 Hackett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영역에 적용해 볼 때,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감은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인지적 변인이 된다.(손승희, 2000).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37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 효능감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진로 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중 결정성 차원과 확신성 차원이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적 확신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은경, 이혜성, 2002).

우리나라 에서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경찬(1996)의 연구에서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와 관계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김현숙, 1996)

한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김현숙(1996)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진로관여도, 진로확적도 진로독립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선택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방향에 대해 좀더 확신하며, 진로선택에서 독립적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이은경, 이혜성(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태도성숙을 가장 예측하는 변수는 진로결정효능감으로 중학생의 경우 46%까지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중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 일반적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애착 안정성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효능감이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감 이외에도 자신을 둘러싼 배경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결정효능감이 전체 분산의 50%를 설명하고 있어 매우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효능감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진로태도성숙을 예측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목표선택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55%의 설명력을 가졌다.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이선(2005)의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혜선(2002), 노미순(1999), 오은경(2003)등의 기존연구와도 일치한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성숙은 성별, 가정환경, 학업성적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의해 학생들의 진로성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학교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업에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살펴본 진로성숙의 경우 윤희준과 이재신(1986)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진로성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특기할 점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하며, 그 이유를 보상 및 기대심리로 해석하고 있다. 김이선(2005)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 전체와 5개의 진로성숙도 변인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이는 구혜선(2002), 오은경(2003)의 기존연구와도 일치한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진로성숙도 전체와의 관계에서는 부, 모 모두 준비성 차원에서만 대졸이사의 고학력자 자녀가 중졸이하 저학력자 자녀보다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여타 분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2005). 이는 부모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구혜선(2002), 오은경(200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에 대한 비교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이 연구가 비교연구임을 전제할 때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에 대한 일정한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두 집단 간의 지역적 또는 대학 간의 수준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0년 현재 한국 S시체육대학교와 중국 상구시 사범대학교 체육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목적적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한국 체육대학생 학년별로 총 300부를 배포하여 270부를 회수하였으며,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0부를 제외한 25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중국 체육대학생 학년별로 총 450부를 배포하여 450부를 회수하였으며,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6부를 제외한 424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한국체육대학생의 일반적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	계
성별	남성	84.6	167
	여성	15.4	83
독신자녀	맞다	9.4	57
	아니다	90.6	193
아르바이트경험	있다	91.5	228
	없다	8.5	22
진로지도	있다	45.7	115
	없다	54.3	135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84.6%), 여성(15.4%), 독신자녀는(9.4%), 독신자녀가 아닌 학생은(90.6%) 알바경험유무별로는 경험 있는 학생은(91.5%), 경험 없는 학생은(8.5%), 진로지도유무별로는 있는 학생은

(45.7%), 없는 학생은(54.3%)으로 나타났다.

< 표 2> 중국체육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	계
성별	남성	61.6	261
	여성	38.4	163
독신자녀	맞다	18.4	78
	아니다	81.6	346
아르바이트경험	있다	71.5	303
	없다	28.5	121
진로지도	있다	25.7	109
	없다	74.3	315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61.6%), 여성(38.4%), 독신자녀는(18.4%), 독신자녀가 아닌 학생은(81.6%), 알바경험유무별로는 경험 있는 학생은(71.5%), 경험 없는 학생은(28.5%), 진로지도유무별로는 있는 학생은(25.7%), 없는 학생은(74.3%)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설문지 구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Betz와 Taylor 의 “진로생애 결정자기효능감” (CDMSE)을 방용신(彭永新)과 용이영(龍李榮) (2000) 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작성하였다. 그중 자기평가(6), 정보수집(9), 목표설정(9), 계획수립(8), 문제해결(7). 이 설문지의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안 하에 5문항을 제거한 34문항을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Crites(1978)의 진로성숙검사(CMI)를 토대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중 결정성(10), 준비성(10), 독립성(9), 목적성(8), 확신성(10), 이 설문지의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매우 자신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구성 지표 및 내용 그리고 문항 수는 <표 3> 과 같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내용 및 구성 지표

구성 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독신자녀, 아르바이트경험, 진로지도	4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4), 정보수집(8), 목표설정(9), 계획수립(7), 문제해결(6)	34
진로 성숙도	결정성(10), 준비성(10), 독립성(9), 목적성(8), 확신성(10)	47
총 문항 수		85

2) 측정 도구의 구성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결과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1	2	3	4	5
정보	효능감14	.882	.170	.099	.156	.056
	효능감20	.869	.096	.081	.127	.106
수집	효능감29	.860	.131	.081	-.049	.113
	효능감6	.853	.131	.111	.084	.101
계획	효능감8	.129	.847	.164	-.006	.184
	효능감16	.098	.839	.146	-.031	.152
수립	효능감22	.173	.818	.192	.047	.169
	효능감33	.147	.765	.205	-.063	.150
문제	효능감9	.079	.175	.833	.016	.121
	효능감17	.110	.222	.806	-.014	.088
해결	효능감34	.160	.151	.804	.065	.113
	효능감30	.018	.124	.796	-.238	.095
자기	효능감26	.112	-.023	-.046	.928	-.042
	효능감13	.082	-.021	-.039	.921	-.057
평가	효능감18	.080	.005	-.037	.902	-.091
	효능감15	.153	.153	.142	.027	.820
목표	효능감28	.142	.250	.127	-.009	.805
	효능감10	.049	.193	.117	-.280	.752
고유값(eigen-value)		5.699	3.226	1.944	1.705	1.264
공통 분산(%)		31.663	17.923	10.798	9.472	7.021
누적 분산(%)		31.663	49.586	60.384	69.856	76.876
Cronbach's Alpha		.788	.882	.836	.856	.790

KMO= .825, Bartlett 구형성 검정=4889.447 , P= .000

<표 4>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전 방식을 이용한 요인 분석 결과이다. 먼저, 요인 분석의 적절성을 살펴볼 수 있는 KMO값은 .825,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4889.447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39문항 중 하위 척도에 기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21개의 문항(1, 2, 3, 4, 5, 6, 8, 11, 13, 14, 15, 22, 23, 24, 26, 28, 29, 30, 32, 36, 37)을 제거하고, 요인 적재치가 .60 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18개 문항 5개의 요인 구조를 확정하였다.

(2) 진로성숙도 척도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표 5> 진로성숙도 척도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정 결과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1	2	3	4	5
확신성	성숙도28	.844	.130	.037	.123	.087
	성숙도38	.831	.151	.024	.129	.102
	성숙도18	.823	.140	.092	.203	.079
	성숙도46	.820	.161	.031	.083	.060
	성숙도3	.818	.198	-.008	.071	.133
결정성	성숙도45	.162	.852	-.062	.126	.063
	성숙도41	.133	.843	-.059	.080	.082
	성숙도21	.203	.809	-.028	.188	.075
	성숙도26	.160	.805	-.069	.119	.093
	성숙도6	.128	.780	-.116	.148	.114
준비성	성숙도34	.043	-.071	.871	-.071	-.072
	성숙도43	.053	-.074	.862	.016	-.123
	성숙도47	-.035	-.089	.822	-.001	-.083
	성숙도29	.057	-.064	.802	-.053	-.074
	성숙도19	.039	-.011	.794	-.070	-.068
독립성	성숙도10	.084	.103	-.044	.857	.131
	성숙도15	.089	.098	-.087	.835	.149
	성숙도5	.090	.139	-.043	.801	.141
	성숙도44	.125	.147	-.057	.787	.119
	성숙도25	.210	.154	.036	.772	.038
목적성	성숙도32	.103	.090	-.116	.148	.842
	성숙도37	.100	.081	-.130	.056	.823
	성숙도17	.008	.037	-.192	.030	.820
	성숙도7	.136	.099	-.024	.190	.803
	성숙도22	.103	.108	.006	.157	.753
고유값(eigen-value)		7.029	3.867	2.644	2.378	1.994
공통 분산(%)		28.116	15.467	10.576	9.513	7.978
누적 분산(%)		28.116	43.583	54.159	63.673	71.650
Cronbach's Alpha		.909	.905	.895	.894	.887

KMO= .767, Bartlett 구형성 검정= 7019.464, P= .000

<표 5>는 진로성숙도 척도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전 방식을 이용한 요인 분석 결과이다. 먼저, 요인 분석의 적절성을 살펴볼 수 있는 KMO값은 .767,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7019.464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요인 47문항 중 하위 척도에 기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22개의 문항(1. 2. 4. 8. 9. 11. 12. 13. 14. 16. 20. 23. 24. 27. 30. 31. 33. 35. 36. 39. 40. 42)을 제거하고, 요인 적재치가 .60 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25개 문항 5개의 요인 구조를 확정하였다.

3. 연구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한국 S시 체육대학교와 중국 상구시 사범대학교 체육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전화통화를 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조사는 2010년 3월 중에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료하는 시간은 대략 2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본 연구의 절차

4. 자료 처리 및 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한 후, 분석 가능한 자료들을 SPSS/PC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선택 요인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통 요인 분석의 주성분 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과 베리맥스(Varimax) 직각 회전 방식을 이용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한국체육대학생, 중국체육대학생 집단의 내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분석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1장에서 설정한 가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둘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개인적 특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1)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검증 결과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유의성 검증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요인의 차이검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남자		F값	유의도	여자		F값	유의도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정보수집	3.47±.98	3.34±.68	1.155	.283	3.31±.1.05	3.43±.55	5.747	.342
계획수립	3.70(a)±.79	3.60(b)±.63	3.959	.047	3.69(a)±.94	3.42(b)±.75	1.315	.035
문제해결	3.69±.84	3.52±.70	.770	.381	3.77(a)±.81	3.37(b)±.66	5.467	.032
자기평가	2.52(a)±.1.28	3.42(b)±.70	48.802	.000	2.12(a)±.99	3.73(b)±.62	3.834	.000
목표수집	3.64±.88	3.65±.66	.278	.598	3.75±.93	3.44±.67	6.552	.487

Duncan 사후 검증 결과: a>b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효능감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한 결과이다.

계획수립요인($p<.047$)과 자기평가요인($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한국남자가 중국남자보다 계획수립, 자기평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계획수립요인($p<.035$), 문제해결요인($p<.032$), 자기평가요인($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한국여자가 중국여자보다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2) 독신자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검증 결과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독신자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유의성 검증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독신자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의 차이검증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독신 자녀(YES)		F값	유 의 도	독신 자녀(NO)		F값	유 의 도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정보 수집	3.38±.52	3.49±.63	5.467	.127	3.75(a)±.64	3.56(b)±.69	.552	.020
계획 수립	3.55±.88	3.50±.65	3.723	.325	3.46±.61	3.24±.65	.448	.548
문제 해결	3.49(b)±.67	3.58(a)±.76	5.431	.019	3.83(a)±.65	3.68(b)±.57	.479	.019
자기 평가	3.60±.74	3.60±.84	4.635	.094	3.38±.84	3.54±.76	.594	.094
목표 수집	3.56(b)±.69	3.67(a)±.68	5.592	.015	3.30±.65	3.27±.81	.505	.105

Duncan 사후 검증 결과: a>b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독신자녀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이다. 문제해결요인($p<.019$)과 목표수집($p<.01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국 독서자녀인 학생이 한국 독서자녀인 학생보다 문제해결, 목표수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p<.020$), 문제해결($p<.01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한국 독서자녀가 아닌 학생이 중국 독서 자녀가 아닌 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아르바이트경험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검증 결과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유의성 검증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의 차이검증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유		F값	유 의 도	무		F값	유 의 도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정보 수집	3.84(a)±1.00	3.46(b)±.46	.387	.023	3.32±1.03	3.58±.43	.357	.534
계획 수립	3.81(a)±.80	3.48(b)±.67	4.975	.026	3.43(b)±.91	3.65(a)±.51	.375	.035
문제 해결	3.82(a)±.79	3.65(b)±.42	1.278	.039	3.47±.86	3.61±.86	.861	.259
자기 평가	2.48±1.18	3.22±.61	.720	.397	2.57±1.20	3.57±.40	.514	.397
목표 수집	3.76±.86	3.58±.70	3.160	.076	3.49(b)±.95	3.39(a)±.65	.660	.036

Duncan 사후 검증 결과: a>b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이다. 정보수집요인($p<.023$), 계획수립요인($p<.026$), 문제해결요인($p<.039$)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한국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국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계획수립요인($p<.035$), 목표수집요인($p<.036$)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중

국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이 한국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진로지도 상담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검증 결과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지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유의성 검증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진로지도 상담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의 차이검증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유		F값	유 의 도	무		F값	유 의 도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정보 수집	3.57(a)±.89	3.40(b)±.57	4.815	.029	3.35(b)±1.04	3.45(a)±.60	.767	.032
계획 수립	3.75±.86	3.52±.59	.148	.701	3.68±.85	3.77±.55	.542	.812
문제 해결	3.85±.84	3.44±.85	.098	.754	3.67±.82	3.16±.70	.580	.532
자기 평가	2.48(a)±1.26	3.40(b)±.76	3.309	.040	2.32±1.17	3.58±.60	.613	.090
목표 수집	3.69±.86	3.49±.60	.505	.478	3.68(b)±.91	3.76(a)±.54	.629	.042

Duncan 사후 검증 결과: a>b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지도 상담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이다. 정보수집요인(p<.029), 자기평가요인(p<0.40)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진로지도 상담을 받은 한국학생이 진로지도 상담을 받은 중국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수집(p<.032), 목표수집(p<.042)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로지도 상담을 받지 않은 중국 학생이 진로지도 상담을 받지 않은 한국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1장에서 설정한 가설에 기초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 진로성숙도(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체육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결정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145로 14.5%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한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정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결정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725	.251	5.166	.040
계획수립	.162	.046	.947	.038
문제해결	.685	-.232	4.960	.047
자기평가	-.406	-.103	-2.317	.162
목표설정	.079	.098	1.541	.104
(상수)	12.063		6.127	.000
R ² = .157		수정된 R ² = .132	F값= 23.006	

중국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결정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문제해결, 자기평가 요인이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145로 14.5%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정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결정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069	.072	1.350	.178
계획수립	.015	.013	.229	.819
문제해결	-.127	-.109	-1.988	.047
자기평가	-.088	-.108	-2.148	.032
목표설정	-.099	-.092	-1.631	.104
(상수)	3.566		12.037	.000
R ² = .164		수정된 R ² = .145	F값= 18.027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체육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결정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과 같이 정보수집,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055로 5.5%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한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준비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준비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123	.159	3.091	.015
계획수립	.071	.074	1.463	.055
문제해결	.067	.084	1.708	.043
자기평가	.120	.113	2.413	.031
목표설정	.130	.125	2.928	.028
(상수)	8.038		14.433	.000
R ² = .059		수정된 R ² = .055	F값= 7.718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준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준비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정보수집,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 요인이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175로 17.5%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정보수집,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중국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준비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준비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128	.144	2.953	.003
계획수립	.109	.103	1.927	.055
문제해결	.153	.141	2.820	.005
자기평가	.159	.212	4.586	.000
목표설정	.151	.151	2.928	.004
(상수)	1.188		4.724	.000
R ² = .185		수정된 R ² = .175	F값= 18.962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체육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결정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과 같이 정보수집, 문제해결, 목표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045로 4.5%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한국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독립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독립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142	.172	3.307	.034
계획수립	-.026	-.026	-.499	.458
문제해결	.065	.076	1.530	.020
자기평가	.026	.023	.480	.547
목표설정	.051	.087	0.172	.038
(상수)	9.804		16.279	.000
R ² = .042 수정된 R ² = .040 F값= 5.418				

중국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독립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5>과 같이 문제해결, 목표설정 요인이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115로 11.5%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중국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독립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독립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017	.018	.340	.734
계획수립	.020	.018	.308	.758
문제해결	-.098	-.085	-1.541	.024
자기평가	-.025	-.031	-.602	.547
목표설정	-.071	-.067	-1.172	.042
(상수)	3.295		11.156	.000
R ² = .120 수정된 R ² = .115 F값= 10.020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체육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결정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6>과 같이 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설정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012로 1.2%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한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적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목적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104	-.109	-2.061	.037
계획수립	.119	.101	1.931	.947
문제해결	.040	.040	.798	.510
자기평가	-.050	-.038	-.785	.005
목표설정	.306	.073	1.217	.265
(상수)	9.845		12.227	.000
R ² = .013		수정된 R ² = .012	F값= 1.669	

중국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목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목적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7>과 같이 자기평가 요인이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482로 48.2%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평가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적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목적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048	-.050	-.961	.337
계획수립	.002	.002	.032	.947
문제해결	-.041	-.035	-.660	.510
자기평가	-.231	-.281	-5.777	.000
목표설정	.607	.061	1.117	.265
(상수)	3.550		12.227	.000
R ² = .493		수정된 R ² = .482	F값= 31.097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체육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결정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8>과 같이 계획수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014로 1.4%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한국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확신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확신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053	.075	.238	.451
계획수립	.055	.068	.490	.020
문제해결	.096	.073	.207	.373
자기평가	.080	.028	.105	.958
목표설정	.091	.059	-.535	.085
(상수)	2.387		8.329	.000
R ² = .016		수정된 R ² = .014	F값= 11.328	

중국체육 계열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확신성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요인인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9>과 같이 계획수립, 목표설정 요인이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은 수정된 R²의 값이 .104로 10.4%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계획수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표설정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중국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확신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확신성		t값	유의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정보수집	.062	.066	1.225	.221
계획수립	.065	.058	.986	.025
문제해결	-.045	-.040	-.718	.473
자기평가	-.001	-.001	-.015	.988
목표설정	.038	-.036	-.628	.030
(상수)	2.437		8.347	.000
R ² = .108 수정된 R ² = .104 F값= 10.647				



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진로상담 장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점점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와 문화교류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인적 자원을 채용 및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가설적 명제의 검증 결과분석을 기초하여 첫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둘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육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한국체육대학생 중 남학생이 중국체육대학생인 남학생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한국체육대학생 중 여학생도 중국체육대학생인 여학생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성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상관성이 있다고 입증한 종요(鐘瑤, 2009), Bandura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서 체육계열 남학생은 취직을 할 때 여학생보다 자신감이 높고, 일정한 우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주로 중국의 문화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본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권문화 전통에 이어 사회에서는 여자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의 이런 생각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한국독신 자녀가 아닌 학생이 중국 독신자가 아닌 학생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지만 문제해결에서 독신자녀가 아닌 학생이 독신자녀인 학생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원인은 80년대부터 독신자녀가 많아지면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모든 이을 간섭하여 관리하였다. 이런 아이들은 독립능력이 약해지면서 적당한 지도와 단련을 받지 못하였다. 반면, 독신 자녀가 아닌 아이들은 독립능력이 강하고 사회적응능력이 빠르다. 그러하여 문제해결 하는데 있어서 독신자녀가 아닌 학생들은 독신자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체육대학생의 아르바이트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비월(姜飛月,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생들한테 정확한 직장생활을 알려주게 되고 이후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체육대학생의 진로지도 상담을 받은 경험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진로지도 상담을 받은 학생은 진로지도를 받지 않은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은 중국의 진로상담은 아직 도입초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체육 대학생의 상황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진로분야에서 자기효능감 이론을 적용한 Betz & Hackett(1981), 강경찬(1996), 남미숙(199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신의 진로문제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능동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체육대학생의 결정성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국학생들은 결정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자기평가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체육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결정성에 정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 체육대학생은 결정성이 높을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 현재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준비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준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체육대학생의 준비성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체육대학생도 준비성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과 중국체육대학생들의 진로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직업선택 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준비의 정도 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한 김철수(2002), 이연숙(200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셋째,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독립성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체육대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독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자신이 주체적으로 진로문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현숙(1996)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독립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선택한 진로방향에 대해 좀 더 확신하고 진로선택에서 독립적임을 시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적성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철수(2002)의 연구에서 목적성의 의미가 자신의 이상과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목적성이 낮다는 것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

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목적성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크다고 규정하고 그 관계가 부적인 상관이라고 입증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확신성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확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진로문제에 관해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적 확신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이기학, 이학주(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한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상태나, 진로계획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인원이 각각 달라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VI. 결론

본 연구는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가설적 모형을 기초로 하여 체육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자료 수집을 위해 질문지법을 이용한 표준화 검사지로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응답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다변량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결정성이 높았다.

그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인 문제해결, 자기평가 요인이 진로성숙도 요인인 결정성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준비성이 높았다.

그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인 정보수집, 문제해결, 자기평가, 목표설정이 진로성숙도 요인인 준비성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독립성이 높았다.

그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인 문제해결, 목표설정 요인이 진로성숙도 요인인 독립성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적성이 높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적성이 높다 그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인 자기평가가 진로성숙도 요인인 목적성에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확신성이 높았다.

그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인 계획수립, 목표설정 요인이 진로성숙도 요인인 확신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 및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 결과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한국의 대학생이 중국의 대학생보다 조금 더 성숙되었으나 두 나라 사이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였으며 성별 차이가 존재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문화적, 학문적, 실용적 측면에서 한국의 진로교육과 정책에 있어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대학생의 진로교육과 그 정책이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많은 효율성이 기대된다. 특히 , 한국체육대학생과 중국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연구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국 56개의 민족중 한족으로만 대상으로 했다. 물론 한족이 전체 인구의 95% 이상을 점하기 때문에 대표 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 내 민족 간의 비교연구 또는 한국체육대학생과 조선족과 같은 특정 수수민족 간의 비교 연구의 후속 연구도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중국체육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중국 진로상담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마련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진로 정체감, 진로장벽, 불안 등의 심리적 변인과 병행해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면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경찬(1996).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 김원선(1989). 진로의식성숙과 관련변인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김원중(1984). 진로의식 성숙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김이선(2005). 중학생의 자아존중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철수(2002).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95).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 김현숙(1996).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구혜선(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박은지(2005). 댄스스포츠지도자 직업사회화의 문화기술적 이해
인천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 류태호(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 이재창(2002). 여성의 진로지도의 방안모색. 학생생활연구, 16, 1-20.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재선(1998). 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과 자아 정체감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력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오은경(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 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200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혜성(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광희(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 심일보(2008). 대학생의 특성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손천택(2003). 체육교사 양성프로그램의 현상학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 4.
- 장범식(2007). 체육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이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 진 지(2009).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성별과 학년에 의한 내설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정진선(200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인(200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상담태도, 진로상담에 기대와 상담성과 간의 관계모형.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 최희진(2002). 중학교 초임 체육교사의 교직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 한국체육학회지, 41, 2
- 최영실(1996). 사회체육지도자의 역할지각과 역할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趙 欣 (2009) , 大學生職業決策自我效能与職業成熟度的關係研究。
職業技術教育1 (30) , 563.
- 胡艷軍 (2009) , 父母支持与職業歸因風格對大學生職業決策自我效能感的影響。
天津 師範大學
- 施蘭來 (2009) , 護理本科生職業決策自我效能感的調查与分析。
中國醫科大學
- 馬傳浩 (2007) , 高校体育專業本科生職業趨向的調查研究。
淮南職業技術學院學報4 (7) , 25.
- 白文飛, 徐玲 (2002) , 体育院校畢業生就業問題的分析。
中國体育科技, 38 (3)
- 劉長江, 郝芳, 李紓 (2006) , 大學生職業決策困難及其与效能的關係。
中國科學院心理研究所。5 (14).
- 張小東, 劉建國 (2001) , 試論新形勢下的大學生畢業生就業。
贛南師範學院學報, (5).
- 韓勤英, 劉獻國, 葛春林 (2003) , 河南省高等師範院校体育教育專業畢業生就業狀況的調查。中國体育科技, 3 (39).
- 王麗娜, 劉淑娜, 葛超, 張殿亮 (2004) , 我國体育院系運動訓練專業畢業生就業与課程設置的优化研究。首都体育學院學報, 4 (16).
- 朱漢義 (2004) , 從現代人才關析体育院校學生就業。
南京体育學院學報, 2 (18).
- Anderson, Robert N., Greene Myrna L., and Loewen, Pamela S.(1988). Relationship samongteachers' and students' thinkingskill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TheAlp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4(2).148-165.
- Astin, H S.(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A sociopsychological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 117-126.
- Armsden, G. C.(1986).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Relationships to affective status, self-esteem and coping with loss, threat and challenge, *Dissertation Abstracts Int*, 47, 1751-1752.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Adams, N. E., Hardy, A. B., & Howells, G. N.(1980). Tests of the generality of Self-efficacy the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39-66.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T: Prentice Hall.
- Beck, A. 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tz, N. E., & Hackett, G.(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Crites, J. O.(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 Crites, J. O.(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 CBT/McGraw-Hill.inc.
- Hackett G, & Watkins CE, J r. Research in Career Assessment: Abilities, Interests, Decision 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M] // In: WB Walsh & HS Osipow,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5: 196-198.
- Lent, R. W, & Hackett. G.(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Super, D. E. (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 concept. *Occupations*, Vol. 30, 88-92.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1955), The dimension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 College Record*, 57, 151-163.

--	--	--

체육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체육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서 얻은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적인 자료처리에만 이용됩니다.

질문 내용에는 옳고·그른 답이 없기 때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응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는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육전공 석사과정 홍진남

지도교수 이세형

1.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 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자 2) 여 자

2. 귀하는 독신자녀 입니까? 1) 맞다 2) 아니다

3. 귀하는 대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8. 귀하는 진로지도 상담을 받아 본적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II. 다음의 질문들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은 후,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 또는 실정에 맞게 번호에 “✓” 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아하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이 선택하려는 직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의 목표로 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전공에 대한 취직정보를 조회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고려하고 있는 직업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취직 잘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어떻게 취하는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9. 한 직장이나 직업 중 가치가 있는 것을 잘 판단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신의 생활방식에 어울린 직업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직장을 찾는 과정 중 경제적인 곤란에 부딪힐 때 해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과 취직 상담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은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미래에 할 직업에 관련된 경험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이 주신 압력을 무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하고 싶은 직업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인재 교류 센터에 가본 적이 있고, 인재 채용 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자신이 선택하려는 직업의 미래 발전 경향을 연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자신의 취미에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대학원 다니던지 전문취업 교육을 받던지 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직업의 인건비와 봉급을 조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자신의 전공에 관련이 없는 지식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26.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상담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사회관계를 이용하여 취직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국가 취업 정책을 알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대학원 입학 정보를 조회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자신의 좋아하는 직업의 발전성이 나빠지더라도 취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취직 인터뷰를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취직의 기회가 많이 없을 때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의 질문들은 진로성숙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은 후,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 또는 실정에 맞게 번호에 “✓” 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닌 것 같다	보통 이다	그런 것 같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상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근무 시간도 짧고 작업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 지를 먼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확실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①	②	③	④	⑤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19.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삶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자는 재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줄지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37.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9.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6.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职业决策自我效能感问卷

同学：您好！

本量表是一项有关体育专业大学生职业决策自我效能感研究项目的调查，希望得到您的支持。请先填写个人基本资料，然后按照问卷的指导语作答。您的回答仅供科研之用，我们将严格为您保密，所以您尽可放心作答。问卷的作答无所谓好坏与对错，只要能反映您的真实情况就可以。

请认真阅读下面的陈述，按照你的真实情况回答。

请不要遗漏任何题目，感谢您的合作和支持！

填写好自己的基本信息并在每题最适合自己情况的选项打"√"。

1. 您的性别：① 男 ② 女
2. 是否独生子女：①是 ②否
3. 您是否有过工作或兼职：①是 ②否
4. 是否接受过职业指导或培训：①是 ②否

大学生职业决策自我效能量表

指导语：请仔细阅读下列每一种说话并表明你对完成每一项任务有多大的信心。本问卷每一项后面的5个数字，分别代表你的实际情况符合的不同程度。请根据你自身在学习生活中的真实情况，在最能反映你的实际情况的那个数字上画个圈，注意每一个职能填写一数字，不要多选，也不要漏选！请您在答卷时不要过多的思考，也无须与别人讨论。

序号	项 目	完 全 不 符 合	不 太 符 合	不 清 楚	有 些 符 合	完 全 符 合
1	查找你感兴趣职业或工作的信息。	1	2	3	4	5
2	选择一个适合你个人前途的职业或工作。	1	2	3	4	5
3	为你的职业或工作目标制定下一个近期和长期计划。	1	2	3	4	5
4	即使你灰心丧气时，仍坚持为你的职业目标而努力。	1	2	3	4	5
5	确定你理想的职业或工作是什么。	1	2	3	4	5

6	查找有关聘用你所在系大学生的用人单位的信息。	1	2	3	4	5
7	从你正在考虑的可能的职业或工作中挑选一个职业或工作。	1	2	3	4	5
8	确定你需要采取的行动步骤，以便成功地获得你已选择的职业或工作。	1	2	3	4	5
9	判断一种职业或工作中你认为最有价值的东西。	1	2	3	4	5
10	选择一个适合你喜爱的生活方式的职业或工作。	1	2	3	4	5
11	作出职业决定，不会担心是对还是错。	1	2	3	4	5
12	解决找工作时遇到的经济困难。	1	2	3	4	5
13	确定你最有能力的职业或工作。	1	2	3	4	5
14	找老师询问与你所学专业有关的职业和工作的情况。	1	2	3	4	5
15	选择你的父母不同意的职业或工作。	1	2	3	4	5
16	获得与你未来职业或工作目标有关的工作经验。	1	2	3	4	5
17	当你的父母或朋友要你从事你力不能及的职业或工作时，违背他们的意愿。	1	2	3	4	5
18	描述你想要从事职业的工作事务。	1	2	3	4	5
19	找到并利用人才交流中心，参加人才交流会。	1	2	3	4	5
20	查明目前或未来某种职业或工作的就业趋势。	1	2	3	4	5
21	选择一个适合你兴趣的职业或工作。	1	2	3	4	5
22	为了你的职业目标，决定你是否报考研究生或参加职业培训。	1	2	3	4	5
23	查明某一职业或工作的人均月收入或年收入。	1	2	3	4	5
24	选择一个适合你能力的职业或工作。	1	2	3	4	5
25	学习专业以外的有助于你的未来职业的技能。	1	2	3	4	5
26	准确地评价你的能力。	1	2	3	4	5
27	找一个你感兴趣职业或工作的已参加工作的人交谈。	1	2	3	4	5
28	挑选一个最好的职业或工作，即使要付出更大的努力。	1	2	3	4	5
29	利用各种社会关系，获得职业和工作信息。	1	2	3	4	5
30	利用国家就业政策和法规，保护自己的正当权益。	1	2	3	4	5
31	查找关于研究生招生的信息。	1	2	3	4	5
32	选择你想要的职业或工作，即使它的就业机会呈下降趋势。	1	2	3	4	5
33	成功地应付求职面试过程。	1	2	3	4	5
34	找到就业机会严重不足时的暂时应对措施。	1	2	3	4	5

职业成熟度量表

指导语：本问卷每一项目后面的5个数字，分别代表与你的实际情况相符合的不同程度。

1：非常不符合 2：比较不符合 3：难以确定 4：比较符合 5：非常符合

请根据你自身在学习生活中的真实情况，在最能反映你的实际情况的那个数字上画个圈。

注意：每个项目只能填一个数字，不要多选，也不要漏选！请您在答卷时不要作过多的思考，也无须与别人讨论。

序号	项 目	非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难 以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我已经决定将来要做（什么种类）的工作	1	2	3	4	5
2	选择职业的时候，我最有限考虑的因素是工资待遇	1	2	3	4	5
3	我担心未来找不到自己理想的职业	1	2	3	4	5
4	虽然我现在是在校生，但我已开始设想将来的职业生活	1	2	3	4	5
5	如果父母不赞同我想要从事的职业，是否要选它会使我感到为难	1	2	3	4	5
6	我有几种感兴趣的职业，但不知道究竟改选哪一种好	1	2	3	4	5
7	即使与我的适性（适合的，兴趣）不符，但我还是会选别人羡慕的职业	1	2	3	4	5
8	对与我所选的职业，能否在最广泛的领域取得成功我还缺乏自信	1	2	3	4	5
9	为了能得到自己想要的职业职位，我得提前计划和准备	1	2	3	4	5
10	我会选择父母所希望的职业	1	2	3	4	5
11	我已经选定了我得职业所以现在不再担心选择职业的问题	1	2	3	4	5
12	我想找工作时间短，工作环境好的职业	1	2	3	4	5
13	在自己所选的职业领域里，我有自信能做得和别人一样	1	2	3	4	5
14	我对未来哪种职业更具前景，并不关心	1	2	3	4	5
15	我会根据朋友和家人的意见选择职业	1	2	3	4	5
16	虽然我常会想今后的成就，但实际上没有具体想过要从事哪种职业	1	2	3	4	5
17	选择职业的时候，我优先考虑我能做的出色的职业	1	2	3	4	5
18	由于我对自己缺乏信心，我怀疑能否在自己选的领域里取得成功	1	2	3	4	5
19	我平时注意收集将来可能从事职业的相关资料	1	2	3	4	5

20	不管别人意见如何，我会选择自己喜欢的职业	1	2	3	4	5
21	由于周围不同的人想法不一，我对于应该选择哪种职业很混乱	1	2	3	4	5
22	只要能赚钱，我不在乎工作的种类	1	2	3	4	5
23	不管哪种职业，我都有信心把它做好	1	2	3	4	5
24	在读报纸，杂志，网络新闻的时候，我喜欢读那些在我感兴趣的领域里取得成功的人的报道	1	2	3	4	5
25	只有在别人的支持下，我才能选定职业	1	2	3	4	5
26	对于毕业后的出路没有本质上的想法，对于应该做什么工作感到茫然和无助	1	2	3	4	5
27	我想要在一流的有声望的单位工作，并不考虑兴趣，能力等因素	1	2	3	4	5
28	我担心我选的职业，不能帮助我成为我想要做的那个人	1	2	3	4	5
29	我想向已经在我感兴趣领域里就职的人咨询，交流就业问题	1	2	3	4	5
30	我要根据我自己的标准选择职业	1	2	3	4	5
31	我已经明确了自己的就业方向	1	2	3	4	5
32	在选择职业的时候，对于工作的性质来说，我更看重升职的机会等因素	1	2	3	4	5
33	只要我努力，我就能得到我想要的	1	2	3	4	5
34	我希望能和校友讨论升学与就业问题	1	2	3	4	5
35	为了自己的人生，我要根据自己的意志选择职业	1	2	3	4	5
36	尽管以后我可能会改变想法，但现在要选择自己想做的工作	1	2	3	4	5
37	相对于能去的成就感的工作，我更希望能得到轻松又能挣钱的工作	1	2	3	4	5
38	对于我自身和我具备的能力，我还缺少信心	1	2	3	4	5
39	当我看到一些人在他们感兴趣的职业领域取得成功的时候，我倾向于模仿他们使自己和他们一样	1	2	3	4	5
40	无论别人怎么说我都要选与自己兴趣相符的职业	1	2	3	4	5
41	我还没有明确地决定自己将来做什么工作	1	2	3	4	5
42	我有信心得到上司的认可	1	2	3	4	5
43	即使现在我还未选定将来从事的行业，但我认为从现在开始对将来进行思考和准备是很重要的	1	2	3	4	5
44	如果我不顾父母的反对选择职业，以后可能会后悔的	1	2	3	4	5
45	对于选择何种职业，我很难决定	1	2	3	4	5
46	可能因某种原因，无论我怎样努力，都未必能选择到我所希望的职业	1	2	3	4	5
47	为了了解自己的兴趣和性格特点等，我希望能得到咨询和指导	1	2	3	4	5